

# 『於于野談』 소재 귀신담 一考

김선아(전북대학교)

## 1. 서론

『桃花女 鼻荊郎』이야기에서부터 서거정의 『筆苑雜記』, 성현의 『慵齋叢話』, 남효온의 『秋江冷話』, 김안로의 『龍泉談寂記』 등의 문집에 이르기까지 귀신에 대한 이야기, 귀신에 대한 담론은 시대의 변화 속에서도 끊임 없이 등장했으며, 한 시대가 갖는 사회·문화적 특성과 모종의 함수 관계를 형성하며 그 존재 방식이나 내용을 달리하고 있다.

허균은 잡록류인 『惺翁識小錄』에서 “사건이 남의 악함을 나타내게 되는 것은 삭제하고, 응보를 말한 것, 명부귀신을 서술한 것, 꿈과 점술을 기록한 것, 부정한 짓에 가까운 것은 죄다 삭제하였다”라고 밝히고 있으며 이수광은 『芝峰類說』에서 “일이 신비하고 괴이한 것에 이르러서는 일체 기록하지 않았다”라고 했다.

허균과 비슷한 시기의 인물인 유몽인의 『어우야담』에는 귀신에 관한 이야기<sup>1)</sup>가 자주 등장하며 그 분량도 전체 이야기 중 많은 분량을 차지하

---

1) 주제 차원으로는 인물의 성격을 드러내기 위해 귀신을 차용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귀신담으로 뭉뚱그려 이름 붙이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도 발견할 수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귀신을 소재

고 있다. 이것은 유몽인 이전 작가들은 물론 동시대의 작가들과도 차이점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어우야담』에 기술된 귀신담을 살펴보고 그 특징과 의미에 관해 논의하는 것이 『어우야담』의 이해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진다.

귀신담에 관한 선행 연구들에는 귀신의 문화적 의미나 정체를 규명하기 위한 연구<sup>2)</sup>, 정신분석학 측면의 연구<sup>3)</sup>, 冤鬼의 사회적 의미와 기능 연구<sup>4)</sup>, 귀신담에 나타난 신이 인식의 의미를 문학사와 관련하여 고찰하고 신이현상에 반응하는 사람들의 태도에 따라 귀신담을 逐鬼談과 惑鬼談으로 구분한 연구<sup>5)</sup> 등이 있다. 근래에는 귀신의 서사화 방식, 형상화 과정, 의미와 기능에 관심이 주어지고 있으며 귀신담의 통시적 변모 양상<sup>6)</sup>도 주목되었다.

그 동안 『어우야담』 소재 귀신담은 조선 전기, 중기에서 전개된 귀신론에 대한 근거로 단편적으로 소개되었으며<sup>7)</sup> 우리나라 도깨비의 현상을 종합하고 그 심리학적 측면을 살펴보는 논의<sup>8)</sup>에 한 작품이 인용되었다. 귀신과 인간의 교류 방식을 유형화하여 그 특징을 추출해 내거나 인간과 귀신의 관계 양상을 통해 그 의미를 밝힌 논의<sup>9)</sup>에서 『어우야담』소재 귀신담들의 분석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아직도 『어우야담』소재 귀신담의 구체적인 분석을 통해서 형성 원인과 배경, 계기와 원리를 밝히는 논의는

---

로 하고 있는 이야기는 모두 귀신담으로 부르기로 한다.

- 2) 조희웅, 「귀신의 정체」, 『한국학논집』 제30집,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2003.
  - 3) 김중주, 「귀신의 정신분석-라캉 정신분석학적 입장」, 『한국학논집』 제30집,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03.
  - 4) 강진옥, 「원혼설화의 담론적 성격 연구」, 『고전문학연구』 22집, 한국고전문학회, 2002.
  - 5) 조현철, 「조선 전기 귀신 이야기에 나타난 神異 인식의 의미」, 『고전문학연구』 제23집, 한국고전문학회, 2003.
  - 6) 정환국, 「17세기 이후 귀신이야기의 변모와 '저승' 이미지」, 『고전문학연구』 제31집, 2006.
  - 7) 장운선, 「조선의 선비, 귀신과 통하다」, 이숲, 2008.
  - 8) 이부영, 「'도깨비'의 심리학적 측면과 상징성」, 『한국학논집』 제30집,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2003.
  - 9) 윤혜신, 「『어우야담』 소재 귀신담의 귀신과 인간의 교류 방식과 특징」, 『민족문학사연구』 제34호, 2007.
- 신원기, 「귀신담에 나타난 인간의 관계 양상과 의미」, 『어문학교육』 21집, 1999.

매우 소략한 편이다. 본 논의에서는『어우야담』 소재 귀신담이 지닌 특성을 살펴보고 그 상징적 의미와 형성 배경에 관해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 2. 『어우야담』소재 귀신담의 특성

### 2.1. 탈유가적 성향

공자는 “未能事人 焉能事鬼”, “未知生, 焉知死”라 하며 초월적 주재자 내지 귀신의 존재를 직접적으로 문제삼기를 피하고 있으며 인간의 내면적 성실과 행위의 도덕성을 먼저 강조했다. 후에 성리학에서는 귀신의 본성을 자연적 실체로서 해명하려 하였으며 귀신을 이기론에서 취급하며 특히 기의 작용으로 설명하려 하였다. 주자는 귀신을 氣의 屈伸·往來일 따름이라 했으며 陰陽의 消長에 불과하다고 규정했다.<sup>10)</sup> 또한 사생을 기의 순환으로, 귀신과 혼백을 氣의 聚散 내지 離合으로 분석하여 설명하면 서도 사생과 귀신의 문제를 모두 음양의 작용으로서 규정하였다. 귀신·혼백의 현상을 모두 기의 작용상태로 파악하고 있으며 生은 기가 모이고 혼백이 결합하는 것으로, 死는 기가 흩어지고 혼백이 분리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개체에 있어서 死後의 귀신 내지 혼백의 不滅說은 유학에 있어서 논리적으로 시인될 수 없는 것이다. 신유학에서는 氣는 죽게 되면 흩어져 없어지게 되지만 흩어져 없어지는 속도는 차이가 있다고 보았다. 곧 사람이 죽음 자체에 수궁하지 못하면 그 기는 흩어지지 못하고 요괴가 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귀신이란 영원히 존재하지 않으며 기운이 다 되면 기가 흩어져 버리게 되나 삶에 미진함이 있는 경우는 흩어지는 속도가 늦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귀신에 대한 담론은 고려 말부터 등장하기 시작하여 조선 전기에 더욱 활발해졌는데 이러한 사실은 성리학적 체제 안에서 귀신에 대한 담론이 본격화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고 있다.<sup>11)</sup> 고려 말부터 조선 초기라는 시

10) 鬼神只是氣屈伸往來者。鬼神不過陰陽消長而已。〈性理大全。卷28。鬼神〉

11) 조현실, 「조선 전기 귀신이야기에 나타난 神異 인식의 의미」, 『고전문학연구』 제23집, 2002.

간이 갖는 가장 큰 의미는 왕조의 교체로 인한 새로운 지배 체제의 등장이라고 할 수 있다. 고려 말에 들어온 신유학은 조선 시대의 지배 이념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고, 당시 조선의 지배 계층은 사회·문화적 생활 방식과 사고방식이 지배 이념인 유교적 체제 안에서 작동되도록 재정비하는데 노력을 기울였다. 그런 과정 속에서 민간의 귀신 신앙은 유교적인 귀신론에 의해 배격되었다<sup>12)</sup>. 또한 유교적 귀신론에서 귀신은 의도를 지닌 실체로서 경험 주체인 인간에게 반응하는 객체가 아니라 자연의 변화를 설명하기 위한 범주로 나타나고 있을 따름이다. 이러한 귀신관을 바탕으로 유학자들은 전통적으로 믿어왔던 인격적인 귀신들을厲鬼, 慝氣, 妖魅<sup>13)</sup> 등으로 규정하고 귀신의 범주에서 배제시켰고 비록 그들의 힘이 인정되더라도 비정상적인 것, 일시적인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그들을 믿는 행위를 부정하였다. 그리고 귀신의 영역에 있었던 인간의 화복과 夭壽를理, 數, 氣의 결합 속에서 얻어지는 命에 귀속시킴으로써 제외시켰다.<sup>14)</sup>

조선 전기의 귀신론은 결국 귀신이란 단지 기가 모이고 흩어지고 울결될 뿐이라는 것이다. 이런 유교적 귀신론은 당시 작가들에게도 영향을 미쳐 조선 전기의 문인 서거정, 남효온은 귀신이야기들을 거의 무시하고 있으며 성현이나 김안로 등 귀신이야기를 어느 정도 수용하고 있는 작가들도 문집 전체 분량에 비해 미미하게 귀신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다. 유몽인과 동시대인인 허균도 귀신이야기를 다루지 않겠다고 했으며 다른 문인들도 귀신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는 것을 기피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유몽인은 자신의 문집인 『於于集』과 『어우야담』에 귀신 이야기를 다수 수록하고 있다<sup>15)</sup>.

12) 주자는 귀신을 氣의 屈伸·往來일 따름이라 했으며 陰陽의 消長에 불과하다고 했다.(鬼神只是氣屈伸往來者。鬼神不過陰陽消長而已。性理大全, 卷28, 鬼神)

13) 실체로서의 귀신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죽음 등의 이유로 울결되어 있는 氣로 규정하면서 결국 기의 개념으로 해석했다.

14) 이육, 「조선전기 귀신론에 관한 연구」, 『종교연구』15집, 한국종교학회, 1998.

15) <장서각본>:귀신을 감동시킨 김운란의 아쟁이 / 유대수를 살린 유강의 현몽 / 귀신의 노래 / 신막정집 귀신 / 성황신을 복원시킨 김효원 / 아들 살해자를 목 벤 이순신 / 신숙주를 수호한 神童 / 귀신을 쫓아낸 영석/ 술사 황철 / 호정을 물리친 황건중 /

귀신담을 다루는 데 선행되어야 할 것은 ‘귀신’의 범주를 정하는 일이다. 귀신을 지칭하는 말로는 귀신, 혼령, 혼백, 신령 등을 들 수 있다. 鬼, 神, 魂, 魄, 靈이 가리키는 대상과 의미가 다르긴 하지만 『어우야담』의 귀신담을 논의하는 데는 이런 개념을 확실하게 규정하는 일이 딱히 필요하지 않을 것 같다. 鬼는 陰의 氣가, 神은 陽의 기가 모인 것이라는 것이 귀신의 종류를 구분하는 대표적인 개념 설명인데 유몽인은 『어우야담』에서 이 용어들을 엄격하게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지 않으며 한 작품 속에서 동일한 대상을 鬼와 神으로 지칭하기도 한다.

다음은 「귀신도 돌보아준 권벽」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 권벽은 친구의 집이 時氣에 전염되어 위급하다는 말을 듣고 집안 사람들의 만류에도 찾아간다.
- 벗의 집에 가 보니 동복들이 서로 배고 죽어 있었고 권벽을 본 벗은 손을 잡고 울었다.
- 벗의 집에서 함께 잠자다 깨어보니 벗은 몰래 도망가고 없었다.
- 두 귀신(兩鬼)가 나타나더니 권벽은 해치지 않고 도망간 친구를 찾아내 목숨을 빼앗는다.
- 벗이 벽의 은혜조차 돌아보지 않고 벽을 팔아 자신을 대신하고자 하여 몸을 감추어 도망했으므로 神이 그를 죽인 것 또한 마땅하다.

---

성균관의 귀신 / 선조조의 명의 안덕수 / 요귀를 물리친 나옹 / 이항복을 지켜 준 의재의 영령 / 삼척읍의 귀신 백두옹 / 재상을 보호하는 귀신 / 귀신도 돌보아준 권벽 / 순회세자빈백 신령 / 이경류의 혼령 / 나무에 붙은 귀신 / 홍귀달의 혼령에게 술을 대접한 송일 / 귀신의 아내가 된 처녀 / 흥가를 사 갑부가 된 김유 / 학질을 치료한 유몽인의 시 / 비갈의 의미 / 주인의 원수를 갚은 유인숙의 계집종 / 시신들을 물어준 박엽 / 불탑의 귀물을 만난 정백창 / 인생의 前定 / 영변 무당 <만종재본>:유사종의 현몽 / 장옷 입고 현몽한 홍중성 부인 / 진기경 꿈에 나타난 원혼 / 김용 귀신의 시 / 유경심 귀신 / 아들 혼사를 들본 부친 혼령 / 집에 상주한 김우서 부친의 혼령 / 귀신의 의탁처 / 성수침이 만난 귀신 / 승정원 귀신 / 종냥의 시신을 물어준 무사 / 이경희에게 붙은 귀신 / 조카집을 탕진한 안씨 귀신 / 북교의 제사 / 기녀 귀신의 빌미 작품의 제목은 모두 이월영 · 시귀신 역주, 『어우야담』, 한국문화사, 2004(재판본), 이월영 역주 『어우야담 보유권』, 한국문화사, 2001.을 따르고 있으며 내용의 정리나, 내용을 인용하는 것도 모두 이를 기준으로 하였다.

위의 작품에 나타난 귀신의 정체성을 구체적으로 밝히자면 전염병을 옮기는 귀신이라고 할 수 있다. 권벽의 벼의 동복들은 전염병에 걸려 죽었음을 짐작할 수 있고 밤에 나타난 두 귀신이 권벽의 벼를 찾아온 목적은 벼에게도 전염병을 옮기기 위함임을 알 수 있다. 유몽인은 이 작품에서 전염병을 옮기는 귀신을 가리키는 용어로 鬼를 사용하고 있으며 評 부분에서는 도망간 벼를 찾아내 목숨을 빼앗은 두 귀신을 神으로 지칭하고 있다. 전염병을 옮기려고 나타난 앞의 두 귀신이 친구를 찾아내 목숨을 빼앗은 귀신과 동일한 귀신임은 당연하다.

유몽인이 귀신담을 과감하게 수록할 수 있었던 원인은 일차적으로는 당시 사회적 분위기가 달라진 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어우야담』에 수록된 이야기를 살펴보면 당시의 양반들이 귀신의 존재를 수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귀신이 등장하지 않는 작품에서도 그 당시 양반들이 鬼나 魂의 존재를 수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들이 있다. 「심수경과 선연동의 기녀」에서는 “죽는 것은 피할 수 없으니 죽어서 선연동 안의 魂이 되겠다”는 심수경의 시구를 인용하고 있다. 사대부들의 집안에 병이 들거나 기괴한 일이 생길 때 무속인을 불러서 해결하는 내용의 작품들이 여러 개이고, 귀신을 쫓아내는 술사의 능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야기, 귀신이 들려서(接神) 무당이 된 자의 영험함을 증언하는 이야기들도 있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된 것이 일차적인 원인이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어우야담』에 귀신담을 수용한 유몽인의 태도이다. 사회적 분위기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허균이나 이수광 같은 문인들이 자신의 문집에서 귀신담을 배제시킨 점을 감안할 때 『어우야담』의 편자인 유몽인이 귀신담을 제외시키지 않고 기술하고 있는 것은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관점에 의거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어우야담』에는 現生과 대비되는 彼生の 즐거움을 이야기하는 작품도 보인다. 다음은「저승에서 온 손님」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 이집중이 일찍이 社稷祭를 주관했는데 祭官 아무개와 재실에서 잠을 잤다.

- 아무개가 아직 잠이 들지 않고 있었는데 집중이 자다가 갑자기 일어나 옷을 매는 띠를 가져다 스스로 목을 매었다.
- 잠시 후 집중이 목이 거의 졸려 “꽤 꽤” 소리를 냈고 아무개가 목을 조른 띠를 풀어주었다.
- 집중이 깨어나 꿈에 어떤 객이 피생의 즐거움에 대해 극진하게 말해주며 함께 가고 싶다고 반복하여 말했기 때문에 스스로 목을 매었고 객도 목 매는 것을 도왔는데 고통스럽지 않았다고 말했다.
- 내가 소싯적에 가형에게 들은 얘기이다.
- 부모를 원망하며 괴로워하던 마을 아이가 마을의 소나무 가지에 스스로 목을 매니 마을 사람들이 구제해 주었다.
- 그 아이가 어떤 사람이 피생의 즐거움을 말해주길래 그의 말을 따랐던 것인데 자신은 괴롭지 않다고 말했다.
- 나는 항상 이 이야기를 괴이하게 여겨왔었다.

피생은 현생과 대비되는 다른 차원의 삶이다. 사람이 죽으면 기가 소멸되어 존재가 사라진다는 유교적 귀신론의 입장에서는 절대 성립될 수 없는 삶에 대한 인식이다. 그러나 이 작품에서 유몽인은 피생에 관한 이야기를 괴이하게 여겼을 뿐 그것에 대해 부정하는 논평은 하지 않는다. 피생을 긍정했다고 하기도 어렵지만 유교적 귀신론을 가진 인물이었다면 당연히 부정했어야 하는 피생에 대해 판단을 유보하고 있는 것에서 그가 이미 유교적 귀신론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유교적 귀신론에서 제사에서 흠향하는 귀신은 조상신에 한정되어 있고, 그 또한 실체로서의 귀신이 아니라 자손들의 誠과 禮에 감응한 일시적인 기의 현현<sup>16)</sup>이다. 게다가 제사를 올리는 주체는 유교 이념의 대리자로서 제사를 올리는 것이었고 巫·佛·道의 차원에서 올리는 제사는 배척했다. 그러나 유몽인의 『어우야담』에는 무당이나 승려가 제를 올리는 이야기들이 자주 나타난다. 이런 점들로 볼 때 결국 유몽인은 유교적 귀신론과는 상당한 차이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은 유몽인

16) 이육, 앞의 글.

의 탈유가적 성향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어우야담』의 귀신담에는 유몽인 자신의 체험을 기술한 작품도 있다. 「비갈의 의미」라는 작품에서 유몽인은 모습은 다르지만 그 정체성은 신공이라고 여겨지는 해골에게서 감사의 인사를 받고 잠에서 깨어나 두려워하고 있다. 評 부분에서는 고인들이 축문과 제문을 짓는 일이나 술가들이 부적과 주문을 쓰는 것이 허황된 것이 아니라 귀신을 능히 아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고 하면서 술가들이 쓰는 부적과 주문의 가치도 인정하고 있다. 들은 이야기뿐만 아니라 자신의 체험이 바탕이 된 귀신담을 기술하고 있는 것은 유몽인이 탈유가적 성향을 지닌 인물이었음을 나타내는 근거로 들 수 있겠다.

## 2.2. 장자적 상대주의의 수용

유몽인의 호 於于是 『장자』 「天地」篇 중에 자공이 어떤 노인을 만났는데 그 노인이 자공을 신랄하게 힐난하는 대목에서 유래한 것이다<sup>17)</sup>. 장자의 글에서 자신의 호를 취할 정도로 유몽인은 장자에 애정을 가졌던 인물이다. 또한 미/추, 몽/현, 생/사의 분별도 보는 관점과 입장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것이 장자의 상대주의적 입장인데 유몽인의 『於于野談』에는 상대주의적 시각이 돋보이는 작품들이 많이 수록되어 있어 유몽인의 사유 특성을 알 수 있게 해 준다<sup>18)</sup>.

다음은 귀신에 대해 『어우집』에 수록된 작품의 내용<sup>19)</sup>이다.

나는 어릴 적부터 佛家の 저승에 관한 말을 들으면 저들이 罪福으로 현혹시키 한편으로는 인간세상에서 알 수 없는 일을 가지고 민심을 유혹하거나 겁을 주어 악을 닦우치고 선으로 돌아가게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백성의 재물을

17) 子非夫博學以擬聖 於于以蓋衆 獨弦哀歌 以賣名聲於天下者乎 汝方將忘汝神氣 墮汝形骸 而庶幾乎 而身之不能治 而何暇治天下乎 子往矣 無乏吾事.

18) 이러한 특성을 밝힌 선행 연구에는 신익철, 『유몽인 문학 연구』, 보고사, 1998, 이월영, 「유몽인의 명실론과 그 문학적 수용」, 『한국한문학연구』, 제29집, 한국한문학회, 2002 등이 있다.

19) 신익철, 『유몽인 문학 연구』, 보고사, 1998,에서 재인용

속여 빼앗아서 유식자의 배를 채우는 것으로 생각했다. 이번에 귀신의 변란을 겪고 나서야 비로소 세상의 일이 한 가지 관점으로만 논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사람은 마음이 지극히 신령스러워서 죽어도 멀하지 않으니, 죽음이란 잠과 같은 것이다. 잠자면서 꿈을 꾸고, 죽어서도 혼이 있는 것은 다 마음의 작용이다. 이승과 저승 모두 이 이치는 변함없는 것이니, 죽은 뒤에 지각이 있는 것 또한 이치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다. (중략)

옛사람의 혼은 옛사람의 마음이고, 지금 사람들의 혼은 지금 사람들의 마음인 것이다.<sup>20)</sup> 세상이 어지러워져 儒佛이 모두 쇠미하기에 공정하지 못한 것이 인간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 또한 어찌 괴이한 일이겠는가? 아! 정욕을 억제하고 강상의 윤리를 부지하여 광명정대한 태도로 천지에 부끄러움이 없다면 비록 邪鬼에 의해 죽더라도 무슨 한이 있겠는가? 하물며 덕이 있는 군자야 신명이 돕는 바 있음에랴.

이 글 속의 “옛사람의 혼은 옛사람의 마음이고, 지금 사람들의 혼은 지금 사람들의 마음인 것이다.”라는 대목은 유몽인의 귀신에 대한 인식 태도를 극명하게 보여 주고 있다. 유몽인은 혼이란, 즉 귀신이란 그 시대 사람들의 마음이 반영되어 드러난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런 인식이 유몽인으로 하여금 『어우야담』에 그토록 많은 귀신담을 수록하게 한 원인인 것이다.

유몽인은 잠자면서 꿈을 꾸고, 죽어서도 혼이 있는 것을 마음의 작용으로 보고 있다. 이승과 저승 모두 이 이치에 변함이 없으며 죽은 뒤에 지각이 있다는 것이 이치에서 벗어나지 않은 것이라는 유몽인의 생각은 이승과 저승, 삶과 죽음 중 어느 하나를 절대시하지 않는 그의 상대주의적 사유 방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저승 세계를 이승과는 다른 실재적 공간으로 설정했다기보다는 저승이라는 공간을 이승과 같은 차원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할 수 있다.<sup>21)</sup> 저승에서 바라보면 이승이 저승이고 저승에서 바라보면 이승이 저승인 것이다. 이런 유몽인의 관점은 호접몽을 꾸고 난 장자의 생각 바로 그것이다. 『어우야담』 속에서 인간의 삶을

20) 古人之魂 古人之心也 今人之魂 今人之心也.

21) 신익철, 앞의 책.

그대로 살고 있는 귀신의 존재 방식은 삶과 죽음, 사람과 귀신을 같은 차원으로 바라보고 있는 유몽인의 상대주의적 사유방식이 문학적으로 형상화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 3. 『어우야담』 소재 귀신담의 상징적 의미

#### 3.1. 백성들의 상처와 결핍

『어우야담』소재 귀신담에 등장하는 귀신들은 그 존재 방식이 살아있는 인간과 아주 흡사하다. 『어우야담』 속의 귀신들은 배가 고파 먹을 것을 요구하고 살 집을 필요로 하며 입을 옷이 없어서 고민하기도 한다. 죽음의 순간 한기를 느꼈던 귀신은 죽은 후에도 그 한기 때문에 추워하고 어떤 귀신은 결혼할 아내를 구하기도 하며 죽은 아버지의 혼령이 아들의 혼사를 돌봐주기도 한다.

유몽인은 그의 나이 삼십대에 임진왜란을 겪었던 인물이며 그가 생존했던 16,7세기는 전염병이 창궐했던 시기이기도 하다.<sup>22)</sup> 「끓주림으로 인한 氣窒死」의 “만력 47년 기미년은 우리나라의 8도가 그 해 곡식이 크게 흉년이 들어 굶어죽은 시체들이 서로 줄을 이을 정도였다.”는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17세기 초의 흉년은 당시 백성들의 삶을 암울하게 했다. 「끓주린 도적」에서는 흉년이 들어 빈곤하게 되자 양민들이 서로 모여 도적이 되었기 때문에 사람은 해치지 않고 재물만 취했던 세태를 이야기하고 있어서 그 당시 백성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피폐했는지 짐작하게 한다.

『어우야담』에는 인간의 감정에 교감하는 귀신담이 수록되어 있다. 다음은 「귀신을 감동시킨 김운란의 아쟁이」이다.

김운란(金雲鸞)이라는 자는 성균관 진사이다. 진사(進士)에 합격한 후 눈병을 앓아 양 눈을 모두 실명하였다. 선비로서 음양복서(陰陽卜筮)를 배워 판수(判

22) 변정환, 「조선시대의 역병에 관련된 질병관과 구료시책에 관한 연구(4)」, 『동서의학』 제10권 제4호, 1985.

腹)<sup>23)</sup>일 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아쟁이 켜는 것을 배워 스스로 울적함을 달랬는데, 그 수법이 입신(入神)의 경지였다.

어느날 밤 그는, 고칠 수 없는 병으로 인해 하늘의 해도 볼 수 없고, 다시 대과(大科)<sup>24)</sup>를 치를 수도 없으며, 또 음직(陰職)<sup>25)</sup>을 구할 수도 없고, 정상인의 대열에 끼어 사류(士流)와 교제할 수 없는 자신을 스스로 비통해하면서, 그 무한한 슬픔을 아쟁이에 부쳤다. 가까운 남쪽 산록에는 오래된 사당이 있어 그 담벽에 의지하여 서너 곡조를 연주하였는데, 그 소리가 몹시 웅장하면서도 애달팠다. 그러자 갑자기 사당 안의 귀신들이 일제히 무리지어 소리를 내 대성통곡하는데, 그 처량하게 우는 소리가 마치 물끓는 듯 요란했다. 운란은 크게 놀라 아쟁이를 가지고 도망쳤다.(후략)

김운란의 아쟁 솜씨는 자신의 신세에 대한 깊은 한탄에서 비롯된 것으로 김운란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긴 연주이다. 그 마음이 연주 소리를 매개로 귀신에게 전달되었고 김운란의 아쟁 소리에 귀신들은 일제히 대성통곡을 한다. 김운란의 비통함과 상실감이 아쟁 소리를 통해 귀신에게 전달되었고 귀신도 상실감과 비통함을 함께 느끼는 것이다. 운란이 귀신들의 통곡 소리에 깜짝 놀라서 아쟁을 가지고 도망을 가기 때문에 인간과 귀신이 소통하지는 않지만 사실은 귀신의 마음이 인간의 마음과 본질적으로 같음을 보여 주고 있다. 유몽인 스스로『어우집』에서 밝힌 것처럼 생사의 차원만 다를 뿐, 귀신의 마음과 인간의 마음이며 아래의 작품들에 나타나는 귀신들의 결핍, 요구들은 인간의 결핍이나 요구를 대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은 「신막정집 귀신」의 일부이다.

경성 남부(京城南部) 소공주동(小公主洞)에 신막정(申莫定)의 집이 있었는데, 그 집은 항상 주인이 살지 않고 남에게 빌려주어 살게 하였다. 그 까닭을 힐문해

23) 판수: 점치는 일을 업으로 하는 소경.

24) 대과(大科): 과거의 문과(文科)와 무과(武科). 특히 문과를 말할 때도 있음. 소과(小科), 즉 생원시(生員試) 진사시(進士試)의 대(對)로 쓰는 말.

25) 음직(陰職): 과거를 거치지 않고 다만 조상의 혜택으로 얻는 관직. 백골남행(白骨南行).

보니 다음과 같았다.

처음에 주인이 새로 그 집을 사서 살았는데, 그 집에는 귀신이 있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항상 좌우를 떠나지 않았다. 귀신의 언어는 보통 사람과 같았으나, 형체만은 드러내지 않았다. 이윽고 집 주인을 주인님이라 칭하고서 노예 같이 주인을 섬겼는데, 요청하는 것이 있으면 들어주지 않음이 없었다. 귀신이 항상 불시에 먹을 것을 구하였는데 만약 주지 않으면 귀신은 그 때마다 성을 내고 괴상한 짓을 하였다.(후략)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귀신은 생사의 차원만 다를 뿐 하는 행동이 인간과 거의 비슷하다. 우선 귀신이 나타나는 시간은 일반적으로 밤으로 설정되는데 이 이야기에서의 귀신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등장한다. 항상 인간의 좌우를 떠나지 않았으며 인간과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집주인을 노예같이 섬기면서 불시에 먹을 것을 구한다. 그리고 만약 먹을 것을 주지 않으면 성을 내면서 괴상한 짓을 한다. 귀신이 죽음을 맞이하게 된 원인은 나타나 있지 않지만 귀신의 행동으로 보아 ‘굶주림으로 죽게 된 종’이라고 보아도 무방할 듯하다. 이 이야기의 뒷부분에서 주인은 결국 도사에게 방법을 물어 귀신을 쫓아냈고 그 이후로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으며 괴이한 일도 생기지 않았다. 전쟁, 흉년, 전염병 등으로 먹을 것이 귀했던 시기에 죽은 영혼이 살아있는 인간에게 먹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공포를 넘어 인간의 생존 여부와 직결되는 심각한 문제이다. 먹을 것이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 반복하여 먹을 것을 요구하는 귀신의 존재는 결국 인간의 결핍을 초래한다. 이야기에 등장하는 귀신은 ‘결핍’의 표지이며 결핍의 존재인 귀신은 또 다른 결핍을 초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은 「조카집을 탕진한 안씨 귀신」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 낙산 아래 소용동에 사는 과부 안씨가 집안에서 엽불만 하며 소밥만 먹고 늘 흰 중 옷을 입고 짚으로 짠 등근 갓을 쓰고 살다가 육십세가 넘어서 죽었다.
- 안씨의 자녀가 없어서 조카가 그 집에서 살게 되었다.

- 몇 년이 지나 마루에서 사람 소리가 들려 조카가 나가보니 안씨가 흰 증옷을 입고 짚으로 짠 둥근 갓을 쓰고 환한 대낮에 앉아 있었다.
- 배가 고프다며 음식을 청했고 계속 음식을 요구했다.
- 견디지 못한 집안 사람들이 다른 곳으로 가려하자 안씨도 따라오려 하여 그 방법을 포기했다.
- 안씨가 술과 음식을 갖추어서 전별해 달라고 했다.
- 술과 음식을 갖추어서 전별했더니 집을 떠났고 그 후로 소식이 없어서 서로 축하했다.
- 십여 일 후 여러 귀신들과 찾아와 먹을 것을 남김없이 탕진하며 난동을 부렸다.
- 집안 사람들이 달아나 피했지만 가는 곳마다 쫓아왔고 몇 년 사이에 서로 뒤를 이어 죽어 낙산 아래 집은 텅 비게 되었다.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귀신도「신막정집 귀신」의 이야기에서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죽은 원인은 제시되어 있지 않고 대낮에도 활동하고 있으며 사람 소리를 내고 끊임없이 먹을 것을 요구한다. 사람들이 떠나려고 하자 쫓아가려고 한 점도「신막정집 귀신」과 유사하다. 이야기의 결말 부분은 다른데「신막정집 귀신」에서는 귀신이 결국 쫓겨난 반면, 이 이야기에서는 사람들이 쫓겨났으며 결국 죽게 되었다. 살아 있을 때 소밥만 먹고 염불만 하던 안씨 귀신은 죽은 후에는 배가 고프다며 계속해서 먹을 것을 청하는데 이 때 안씨 귀신이 사람에게 청하는 음식은 생전에 먹던 소밥이 아니라 사람의 음식이라고 할 수 있다. 잠시 집을 떠났던 안씨 귀신은 다른 귀신들까지 불러와 조카 집의 먹을 것을 모두 탕진하고 있는데 살아있을 때 제대로 된 음식을 먹지 못했던 안씨의 결핍이 안씨를 귀신으로 나타나게 한 것이고 마찬가지로 살아있는 사람의 결핍을 초래하며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한다.

『어우야담』에는 의탁했던 곳이 없어질까 봐 두려워하는 귀신담이 있다. 다음은 「나무에 붙은 귀신」의 내용이다.

임진난에 통제사(統制使) 이순신(李舜臣)이 장차 전투용 배를 만들려고 수군을

정발하여 한산도(閑山島)에서 재목을 벌채하였는데, 나무 위에서 귀신이 길게 휘파람 소리를 내며 말하였다.

“원하옵건대 이 골짜기의 나무를 베지 마십시오. 죽은 병사의 귀신이 이 골짜기의 나무에 많이 의탁하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들이 와 나무를 베면 우리들은 대부분 다른 나무로 옮겨가야 되니 베지 말아 주십시오.”

군졸들이 물었다.

“당신은 누구요?”

“나는 전라도 유생(儒生) 송(宋)인데 온 집안 남녀가 모두 전쟁에서 죽어 지금은 이 나무에 와서 의탁하고 있습니다.”

수군들이 마침내 다른 골짜기로 옮겨갔다.

전쟁 중에 죽은 귀신이 나무에 의탁하고 있다가 이순신의 병사들이 전투용 배를 만들 나무를 베려하자 나무를 베지 말아달라고 부탁한다. 별다른 문제없이 일생을 마치고 죽음을 맞이한 인간은 장례 절차를 거쳐 무덤 속에서 안식한다. 하지만 이 이야기 속에서 나무에 의탁한 귀신들은 모두 죽은 병사의 귀신으로 전쟁으로 인해 비명횡사했다. 제대로 된 장례는 말할 것도 없고 죽은 육신이 제대로 거두어졌는지도 알 수 없다. 결국은 나무에 의탁하고 있는데 그 나무마저도 전쟁에 쓸 배를 만들기 위해 사라질 상황이었다. 전쟁으로 인한 상처는 죽은 후의 안식마저도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은 「귀신의 의탁처」의 전문이다.

우리 집에 한 계집종이 있었으니 이름은 의신장(倚新粧)이다. 옛날 파주(坡州)에 있을 때 그 아이의 집 뒤에 많은 무덤이 있었는데 산불이 크게 일어나 불길이가 무덤들에게까지 미치니 무덤들 속에서 고통스러워하며 부르짖는 소리가 들렸다는 것이다.

“우리 집에 불이 났소! 우리 집에 불이 났소!”

울부짖는 소리가 들끓었다 하니, 울부짖었던 자들은 무덤의 귀신들임을 알 수 있다.

사람이 죽으면 몸은 도외시되고 만다. 그러므로 옛사람들이 귀중하게 여기는 바는 사당에 있지 무덤에 있지 않았으니, 사당 앞을 지날 때는 수레에서 내리지만 묘지를 지날 때는 식(式)만 했을 따름이다. 혹 인산(因山) 능(陵)을 만들어도 분봉하지 않고 계례(季禮)는 아들을 영단(嬴搏)에 묻으며 가례(家禮)에 유식(侑食)의 절차가 없는 것도 다 이런 의미이다. 예는 본디 절하고 비질하는 것을 중하게 여긴다. 사람 귀신은 반드시 흠향함을 따라 의탁하니 귀신의 도가 옛날과 지금이 다를 바 없다. 이제 보건대 파주의 일은 사람의 영혼이 무덤에 의탁한 것임이 의심할 것 없다. 땅을 상보고 묘를 지키는 일을 어찌 경계하여 타이르지 않겠는가.

유몽인은 산불이 나서 불길의 무덤들에게까지 미치자 무덤 속에서 고통스러워하며 부르짖는 소리가 들렸다는 계집종의 말을 기술하면서 “사람의 영혼이 무덤에 의탁한 것임을 의심할 것 없다. 땅을 상보고 묘를 지키는 일을 어찌 경계하여 타이르지 않겠는가.”라고 평하고 있다. 죽은 이의 영혼도 살아있는 사람처럼 깃들여 살 곳이 필요하고 살아있는 사람이 불길에 고통스러워하는 것처럼 영혼도 불길에 고통스러워하며 비명을 지르고 있다. 의탁할 곳이 없어질까 봐 염려하는 귀신의 모습은 전쟁, 흉년, 기근 등으로 살아가야 할 터전이 없어질까 봐 두려워하는 인간의 모습과 흡사하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 귀신의 마음은 인간의 마음과 본질적으로 같으며 인간이 사는 집에 나타나 먹을 것을 요구하는 귀신, 의탁처가 사라질까 봐 두려워하는 귀신은 모두 전쟁과 흉년, 전염병으로 상처를 입고 결핍이 발생하게 된 인간의 공포를 문학적으로 형상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3.2. 지배 계층의 부조리

『어우야담』에는 편수는 많지 않지만 특정 공간에 현현하는 귀신에 관한 이야기들이 수록되어 있다. 비중은 작지만 귀신이 등장하는 공간과 귀

신의 존재 양상이 편수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삼척읍의 백두옹」, 「성황신을 복위시킨 김효원」의 이야기에는 고려의 마지막 왕인 공양왕이 죽은 곳인 삼척이 공간적 배경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승정원 귀신」에서는 당시의 권력 기관이었던 승정원이, 「성균관 귀신」에서는 생원, 진사들의 숙소인 진사칸이 공간적 배경이 되고 있다. 다음은 「성균관 귀신」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① 두 진사에게 죽게 된 아름다운 어린 유생

- 국초 성균관 동서재가 온돌이 갖춰져 있지 않아 유생들이 서로의 몸의 온기를 의지하여 밤을 보내고 있었다.
- 서재에 진사칸이 있었는데 두 진사가 용모가 아름다운 한 유생과 서로 자려고 다투다가 유생의 다리가 찢어져 죽게 되었다.
- 이후부터 날이 어둡고 비가 내리는 저녁에 죽은 유생의 독서소리가 들리고 그 곳에 거처하던 자들이 가위놀리게 되었다.

② 연산군

②-1. 생원 진사에게 수레를 매게 함

- 연산군이 거리를 횡행할 때 밤에 통금을 어기게 되자 ‘이진사’라고 칭했는데 도적잡는 포교도 벌을 주지 않았다.
- 이후로 ‘생원 진사는 세력 있는 사람들도 꺼리는구나.’라고 생각하여 매번 놀러 갈 때마다 반드시 생원 진사들로 수레를 매게 하였다.

②-2. 성균관에서 호랑이를 기르고 동서재에 기생들을 거주시킴

- 성균관 식당을 부수고 호랑이 우리를 만들었으며 동서재에 기생들을 거주하게 하였다.
- 한 기생이 진사칸에서 자다가 이상하게 죽게 되었다.
- 후에 진사칸에서 기숙하는 선비들의 꿈에 미녀가 나타나 항상 가위놀리게 되었다.

③ 전해에 죽은 장언진이 이철광의 꿈에 나타나 술과 고기를 요구함.

- 무인 6월 15일 생원 장언진이 진사칸에서 객살이를 하다가 친구들의

강권으로 술을 과음하여 죽게 되었다.

- 다음해 6월 15일 진사칸에 거처하던 이철광의 꿈에 장언진이 나타나 내일 館官이 술과 고기를 준비하여 먹일 것인데 자신에게도 나누어 달라고 부탁한다.
- 같이 잠자던 사람에게 사실을 확인하니 장언진의 이야기가 모두 맞았다.
- 철광이 먹고 마시는 자리에 별도의 그릇에 개고기와 소주를 놓고 두 손을 마주잡고 꿇어 앉아 자신은 한 꿩미의 고기 한 잔의 술도 마시지 않았다.
- 같이 술자리에 참가했던 사람들이 서로 팔꿈치로 지르고 웃으면서 “장생이 너에게 한 잔 술을 권하니 세간에 어찌 만년 생원이 있겠으며 이생이 너에게 한 꿩미의 고기를 권하니 세간에 어찌 만년 진사가 있겠는가?”라고 하였다.

이 작품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나열된 세 개의 이야기가 성균관의 ‘진사칸’이라는 배경과 생원·진사라는 신분으로 엮어지는 점이다. 성균관에서 호랑이를 기르게 했다는 ②-1의 이야기에서는 모든 육식동물도 잡아 먹는 호랑이라는 동물의 특성에 천착해 볼 때 먹는 행위와 관련이 있는 호랑이라는 동물과 성균관의 이미지가 결합되면서 성균관과 먹는 일(食)이라는 항목을 추출할 수 있다.

성균관 동서재에 기생들을 거주시켰다는 ②-2의 일화에서는 몸을 밀친으로, 다시 말해 性적인 행위를 파는 기생이라는 직업의 특성에 천착해 볼 때 기생이라는 직업과 성균관의 이미지가 결합되면서 성균관과 性이라는 항목을 추출할 수 있다.

그리고 ②-1의 성균관과 食의 문제는 뒤에 나열된 ③의 장언진 귀신의 일화와, ②-2의 성균관과 性의 문제는 앞에 나열된 ①의 아름다운 유생 귀신 일화와 절묘하게 연결된다. 결국 성균관의 귀신들은 성균관 내부에서 性의 문제를 제대로 해소하지 못한 다른 유생들 때문에 죽은 것이며

(① 아름다운 어린 유생 일화), 食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해 죽은 것(③ 먹을 것을 요구한 장언진 일화)이다. 당시 지식 교육의 최고 단계인 성균관의 진사관에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色과 食의 욕구에서 벗어나지 못해 귀신이 된 존재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 이야기는 성균관 진사관이라는 공간이 가지는 특성을 유몽인은 여러 개의 귀신담을 나열하는 방식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인들의 출입이 자유롭지 않았던 닫힌 공간, 그곳은 당쟁의 중심에 있던 생원 · 진사들의 거처이기도 했다. 여고괴담 시리즈의 ‘여고’라는 공간이 비틀린 교육 시스템이나 정체성의 혼란기에 폐쇄된 공간에서 인간 관계를 형성하는 청소년들의 공포를 은유한 것처럼 유몽인은 성균관이라는 특정 공간에 등장하는 귀신을 통해 당시 사회의 일면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것으로 보인다.

「승정원 귀신」의 공간적 배경인 승정원은 왕의 비서 기관으로 승지들이 6조 이외에 의정부, 사간원, 사헌부, 홍문관 등 주요 부서의 일도 나누어 맡았다. 왕의 모든 명령은 승정원의 승지를 통해 해당 관서에 전달되었으며, 왕에게 올리는 공문이나 건의 사항 또한 승지를 통해서 전해졌다. 승지는 정승이나 판서 등 중요 신하들이 왕을 면담하거나 국가의 중요 회의가 열릴 때 참석해 내용을 기록하는 등 모든 국정에 참여했다. 또한 국왕이 학문을 배우고 신하들과 국정을 논의하는 자리인 경연에 참가했으며, 역사를 펴내는 춘추관이나 학문을 연구하는 홍문관, 나라에서 필요한 글을 짓는 예문관의 직책을 겸하기도 했다. 그리고 국왕의 측근이라는 점이 승정원 승지들의 권한을 더욱 크게 할 수 있었다. 조선시대 승정원 승지는 공식적인 권한 이상의 힘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승정원 귀신」에서는 그런 권한을 지닌 공간에 귀신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 공간은 당시 권력을 전횡했던 이이첨이라는 인물이 언급되면서 의미의 구체성을 드러내게 된다. 권력을 전횡한 이이첨과 그가 속해있던 조선시대 국가 최고 기관이라는 승정원의 특성이 결합되면 승정원에 귀신이 나타난 이야기를 『於于野談』에 수록하고 여러 일화들 끝에 굳이 이이첨이라는 이름을 밝

한 유몽인의 의도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 3.3. 지배 질서의 와해

전술한 바와 같이 유몽인은 임진왜란이라는 큰 전쟁과 흉년으로 인한 기근, 전염병의 창궐 등을 몸소 경험했던 인물이다. 또한 유몽인이 살았던 명종에서 인조까지의 시기는 당쟁이 매우 치열한 혼란스러운 사회였다. 당쟁이란 오늘 정권을 쥐어서 몸을 보존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내일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 모르는 불안의 요소를 안고 있는 것이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유몽인은 당쟁을 싫어하여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그러나 거센 당쟁 속에서 당쟁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아들 약과 함께 사약을 마시고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한다. 「항아리를 뒤집어 쓴 개의 소란」의 앞부분에는 “가정 을사년에 나라에 억울한 송사가 있어 저자에 버려진 시신들이 많아 여염 남녀들이 무서워서 가슴을 두근거렸으며 평상시 캄캄한 밤에 빈 집 지키는 것을 공포스러워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처럼 조선 전기, 공고히 토대를 다지려 했던 유교적 지배 질서가 전쟁, 흉년, 전염병, 당쟁 등으로 와해되기 시작했으며 그런 상황 속에서 백성들이 느끼는 불안감이 『어우야담』 소재 귀신담에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다.

#### 3.3.1. 한 몸과 두 영혼

조현설은 「조선 전기 귀신담에 나타난 신이 인식의 의미」라는 논의에서 15세기 성현, 김시습신의 신이 인식과, 16세기 신광환의 신이 인식이 달라진 원인을 정치적 환경에서 찾고 있다<sup>26)</sup>. 그리고 15세기 성현, 김시

26) 15세기 김시습의 『금오신화』에서는 초월의 시간이 현실의 시간에 의해 통어되는 것이 아니라 초월적 시간이 현실의 시간을 견인하고 있으며 이것은 유가적 도덕률을 넘어 괴력난신의 세계로 들어간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16세기 신광환의 『기재기이』에서는 초월의 시간이 다시 현실의 질서 속으로 귀환하는 이야기의 구조가 현실과의 대결 의식을 무디게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습의 작품과 16세기 신광한의 작품 사이에 등장한 「설공찬전」 논란에 주목하고 있다. 조현설은 「설공찬전」이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것은 유교이념과 배치되는 윤희회복에 대한 이야기, 고위층 인사의 창작물이 주는 민중적 영향력, 왕권모독죄와 풍기문란죄에 해당하는 진술의 등장이 그 원인이었다는 이복규 교수의 의견을 수용하고 있다. 거기에 더해 사람들이 정치적 효과를 노리고 「설공찬전」을 논란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요컨대 유가적 인식이 철저하지 않았던 한 ‘부족한 사림’을 공격함으로써 밖으로는 「설공찬전」을 유통시키고 있는 불미한 사회의 풍조에 경종을 울리고 안으로는 사림 내부의 의식화를 고양시키려 했다는 것이다. 채수는 「설공찬전」에서 “이승에서 비록 비명에 죽었어도 임금께 충성하여 간하다가 죽은 사람이면 저승에 가서도 좋은 벼슬을 하고, 비록 여기에서 임금을 하였더라도 朱全忠 같은 반역자는 다 지옥에 들어가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채수 생존 당시의 임금이었던 중종은 반정을 통해 보위에 오른 임금으로 그 권위가 선왕들보다 약할 수밖에 없었고<sup>27)</sup> 그 정체성도 희미했다. 채수의 「설공찬전」은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고 권위가 약한 중종 정권을 한 몸에 두 영혼이 깃든 것으로 은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설공찬전」과 비슷한 모티브의 이야기가 『어우야담』에도 수록되어 있는데 「귀신을 쫓아낸 영석」이라는 작품이다. 그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원사안(元士安)은 소경대왕조의 문관(文官) 명사(名士)다. 그의 형수 남씨(南氏)가 일찍 죽었는데, 사안의 작은 누이동생 원씨(元氏)는 아직 시집을 가지 않았었다. 하루는 누이동생 원씨가 갑자기 정신이 멍해지더니 이치에 맞지 않는 소리를 제멋대로 지껄이며 자칭 남씨라고 하였다. 사안의 형제가 ‘누이동생’이라고 부르면 곧 “나는 그대들의 누이동생이 아니고 그대들의 형수인 남씨라고 오. 그대들의 누이동생 혼은 저기에 있소.”라고 하면서 창 사이의 빈 공간을 가리켰으니, 이는 그 혼이 원래 있던 곳을 떠나 원씨 몸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목소리와 행동거지가 다 남씨였던 것이다. 어떤 때는 혼이 떠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들어오기도 하였는데, 혼이 떠나가면 누워서 신음하며 아파하였고 혼이

27) 장윤선, 앞의 책.

들어오면 일어나 용모를 바르게 하고 남씨의 말씨로 말하였다. 이렇게 일 년여를 지내니 원씨의 기운은 더욱 상하여 거의 구할 수 없을 지경이 되었다. 원주(原州)는 원씨 집안의 본관(本貫)으로 거기에 옛 별장이 있었다. 원씨 부모가 딸을 데리고 원주로 돌아갔는데 원래는 귀신을 피하고자 한 것이었으나 그 귀신 또한 그들을 따라와 원씨를 못살게 굴었는지라 증세가 더욱 심해졌다.

한 인간의 몸에 두 개의 영혼이 깃들어 있는 것은 몸의 주체는 본인은 물론 주변 사람들에게도 공포스러운 일이다. 두 개의 영혼이 깃들어 있는 몸은 중국에는 기운이 상하여 거의 구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고 살아있는 몸은 죽음에 이르게 된다. 유몽인 당시의 인조 반정은「설공찬전」이 창작되었던 시대적 배경과 공통점을 지니기도 한다. 어떤 때에는 누이동생 원씨였다가 어떤 때에는 형수 남씨가 되는 살아있는 몸은 유몽인 당시 전쟁과 기근, 전염병, 당쟁 등으로 인한 조선 사회의 혼란을 은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3.3.2. 한 공간과 두 존재

『어우야담』에는 사람이 사는 집에 빌붙어 사는 귀신이 많이 등장한다. 집이라는 공간은 일차적으로는 몸을 의탁하는 곳이지만 사회·문화적인 차원에서 보자면 집(家) 자체가 사람, 집안을 의미하기도 하는 등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정체성과 관련된다. 「귀신의 의탁처」에서는 자신의 영혼이 깃들어 살아야 하는 무덤이 불에 타려는 위기를 맞자 다급하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으며 「나무에 붙은 귀신」에서도 의탁하는 나무를 베려하자 베지 말아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무덤은 귀신이 돌아가서 정착해야 할 귀신들의 집이다. 그런데 이 이야기들에서는 그 집이 위협을 받거나 아예 집으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집이 없는 것은 뿌리가 없어진 것이며 뿌리가 없어진 존재는 정체성의 혼란이 와서 불안해지고 그 불안함은 자신의 존재를 자꾸 밖으로 드러내게 한다. 앞에서 예로 든 「신막 정집 귀신」이나 「조카 집을 당진한 안씨 귀신」의 이야기는 무덤을 집으로

삼아야 할 귀신이 제 자리로 돌아가지 못하고 사람의 집에 함께 깃들여 살면서 문제가 발생한다. 사람의 집에 살고 귀신은 무덤에 사는 것이 질서가 잡힌 세계의 모습인데 이런 질서가 붕괴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이것 또한 왜구에게 국토를 유린당한 임진왜란의 상처와 여러 개의 봉당이 형성되어 정치적 발전을 위한 논의보다 이권을 둘러싼 싸움이 치열했던 당시 조정의 혼란과 불안은 은유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어우야담』에서는 귀신이 특정 공간이나 특정 인물의 몸에 깃들여 살 뿐만 아니라 길거리를 오가는 사람들 사이에 귀신들이 함께 섞여서 횡행하기도 한다. 다음은「술사 황철」의 일부이다.

황철(黃轍)은 술사(術士)이다. 젊었을 때 산사에 놀러갔는데 늙은 중이 객사(客舍)에 유숙하고 있었다. (중략) 황철이 이를 이상히 여기고 늙은 중에게 몸을 던지기를 청원하여 중이 된 뒤, 늙은 중의 술수를 모두 전수받아 세상에 행하였는데, 괴이하고 놀랄만한 영이(靈異)한 일들이 많았다.

황철이 일찍이 말하였다.

“내가 일찍이 큰 길 가운데를 보니 사람과 귀신이 서로 섞여, 귀신이 길에 다니는 것이 종로가에 행인들이 많은 것과 같았다. 귀신은 사람을 피하지 않고, 사람들은 스스로 귀신을 보지 못하니 길거리 사람들 사이에는 귀신을 만나는 자들이 많도다.”

귀신의 제자리는 저승이라고 불리는 공간이거나 죽은 육신이 묻혀 있는 무덤이다.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인간과 함께 거리를 다니며 방황하는 귀신이 인간의 눈에 모습을 드러내면 인간과 귀신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혼란과 공포가 야기된다. 귀신들의 존재가 특정한 인물의 눈에만 보이지만 죽음의 세계에 속해 있어야 할 귀신이 삶의 세계에 함께 섞여 공존하고 있는 것은 질서를 깨뜨리고 있는 것이다. 귀신은 사람을 피하지 않고 사람들은 귀신을 보지 못하지만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귀신과 마주하고 있다. 이런 무질서의 상태는 거둬되는 이야기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전쟁, 기

근, 전염병 등으로 인한 당시 사회를 은유하는 것이며 이념적으로는 유교적 지배 질서에 균열이 생기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상에서 살펴 본 것을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질서	무질서
인간 : 인간의 영혼 귀신 : 귀신의 영혼	인간의 영혼 : 인간의 육체 : 귀신의 영혼
인간 : 집 (삶의 세계) 귀신 : 무덤(죽음의 세계)	인간 : 집(삶의 세계) : 귀신

#### 4. 결 론

이상으로 『어우야담』소재 귀신담의 특성과 상징적 의미에 대해 살펴보았다.

『어우야담』에 귀신을 소재로 한 이야기를 수록한 유몽인의 태도는 당시의 지배 이념이었던 유가적 귀신론과 상당히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유몽인은 기의 합산, 울결로 생과 사, 귀신의 존재를 설명하려 했던 유가적 귀신론과는 다른 탈유가적 성향을 보이고 있으며 그러한 성향이 『어우야담』 속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문학적으로 형상화되어 있었다. 『어우야담』에 귀신담을 수록하고 있는 것은 유몽인이 탈유가적 성향을 가졌으며 장자적 상대주의를 수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았다.

『어우야담』에 나타난 귀신담의 상징적 의미는 첫째, 전쟁, 흉년, 전염병 등으로 인한 인간의 상처와 고통을 드러내는 것이고, 둘째, 이권 다툼을 위한 당쟁이 극심했던 당시의 부조리한 정치 상황을 특정 공간을 설정하여 비판한 것이었다. 마지막으로 한 몸에 두 영혼이 깃들거나 삶의 세계라는 한 공간에 죽은 귀신이 함께 살아가는 양상에서 유몽인 당시 사회의 혼란과 무질서가 은유된 것이라고 보았다.

유몽인의 『어우야담』 다음에 등장한 任陞(1640~1724)의 『天倪錄』에는

『어우야담』과 거의 동일한 모티브의 이야기들은 물론 행동이나 나타나게 된 이유가 완전히 일치하는 이야기들도 다수 기술되어 있다. 그런데 『천예록』은 동일한 귀신담이 좀 더 복잡한 구조로 확장되어 『어우야담』과는 확연히 구별되는 특징을 지닌다. 『천예록』의 귀신담와 『어우야담』의 귀신담을 비교해 보면 두 작품 모두 그 특성이 확실해질 것이다. 이는 차후의 과제로 남겨 둔다.

## 〈참고 문헌〉

- 이월영·시귀선 역주, 『어우야담』, 한국문화사, 2004.
- 이월영 역주, 『어우야담 보유편』, 한국문화사, 2001.
- 정환기 역, 『천예록』,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07.
- 강진옥, 「원혼설화의 담론적 성격 연구」, 『고전문학연구』22집, 한국고전문학회, 2002.
- 김종주, 「귀신의 정신분석-라깅 정신분석학적 입장」, 『한국학논집』 제30집,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03.
- 김소영, 「근대성과 여자 귀신」, 『한국학논집』 제30집,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2003.
- 김열규, 「도깨비와 귀신 ; 한국의 남과 여」, 『한국학논집』 제30집,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2003.
- 변정환, 「조선시대의 역병에 관련된 질병관과 구료시책에 관한 연구(4)」, 『동서의학』제10권 제4호, 1985.
- 신원기, 「귀신담에 나타난 인간의 관계 양상과 의미」, 『어문학교육』 21집, 1999.
- 신익철, 『유몽인 문학 연구』, 보고서, 1998.
- 윤혜신, 「『어우야담』 소재 귀신담의 귀신과 인간의 교류 방식과 특징」, 『민족문학사연구』제34호, 2007.
- 이강옥, 「야담의 기이인식 : 학산한언을 중심으로」, 『우리말글』 제37집, 2006.
- 이부영, 「‘도깨비’의 심리학적 측면과 상징성」, 『한국학논집』제30집,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2003.
- 이성무, 『조선시대 당쟁사』, 아름다운날, 2007.
- 이욱, 「조선전기 귀신론에 관한 연구」, 『종교연구』15집, 한국종교학회, 1998.
- 이월영, 「초현존재험 분석을 통한 『금오신화』 연구」.
- 장윤선, 『조선의 선비, 귀신과 통하다』, 이숲, 2008.
- 정환국, 「17세기 이후 귀신이야기의 변모와 ‘저승’ 이미지」, 『고전문학연구』 제31집, 2006.
- 조현설, 「조선 전기 귀신이야기에 나타난 神異 인식의 의미」, 『고전문학연구』

제23집, 2002.

조희웅, 「귀신의 정체」, 『한국학논집』 제30집,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2003.

〈ABSTRACT〉

## The study on ghost story in *Eouyadam*(於于野談)

Kim, Seon-a

This study examined about characteristics and symbolical significance in Gwishin(鬼神), which is material of *Eouyadam*(於于野談).

The attitude in Yu Mong-in(柳夢寅), who recorded a story of having material as Gwishin(鬼神-ghost), was showing quite difference from a Confucian theory of Gwishin, which had been the dominant ideology at that time. Yu Mong-in is indicating post-Confucian propensity different from a Confucian theory of Gwishin, which had tried to describe life(生), death(死), and existence in Gwishin with Hapsan(合散) and Ulgyeol(鬱結) in energy(氣). Such propensity had been embodied literarily into the diverse looks in *Eouyadam*. What a story of Gwishin is recorded in *Eouyadam* was regarded as a reason why Yu Mong-in had post-Confucian propensity and is accepting the relativism of Chuang-tzu.

The symbolic meaning in Gwishin of *Eouyadam*, first, is what reveals the wound and the lack in a human being due to war, a lean year, and epidemic, and second, is what criticized a irrationally political situation at that time, which had been severe in party strife for struggling for rights, by establishing specific space. Finally in the aspect that two souls dwell in one body or that the dead ghosts proceed with living together in one space called the world of life, Yu Mong-in saw it as what confusion and disorder in society at that time came to be metaphorical.

In Im Bang(任望 1640~1724)'s *Cheonyerok*(天倪錄), which appeared following Yu Mong-in's *Eouyadam* is described even many of stories, which are entirely consistent in behaviors or reasons of having come to appear, as well as stories, which have the almost same motive as 『Eouyadam』. By the way, *Cheonyerok* was expanded the same story of Gwishin into the more complex structure, thereby having characteristic that is definitely distinguished from *Eouyadam*. Given comparing Gwishin in *Cheonyerok* and Gwishin in *Eouyadam*, both works seem to be likely to come to be clear in its characteristics. This is left as future task.

이 논문은 2008년 12월 12일에 투고되었으며, 2009년 1월 23일에 심사 완료되어 2월 10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
---